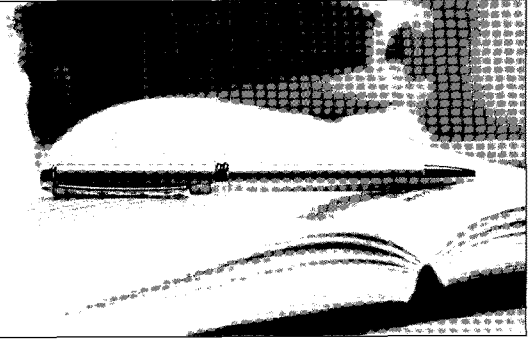


함께 잘사는 법



지난 11월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어깨가 올라가며 팬스레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았던, 그래서 우리 모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된 큰 국제 행사들이 있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 최고의 잘사는 나라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제7차 G20 Seoul Summit 2010(선진 20개국 서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국민들을 한국 특유의 손님을 지극하게 맞이하는 공동체 문화를 보여 주었고, 시민들의 자율적 2부제 차량 운행 참여와 자원 봉사자들의 섬김의 정신으로 회의를 완벽하게 진행한 데 대하여 전 세계 매스컴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내년 6월 8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프랑스를 긴장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환율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 국가 간 매우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의 상황에서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중재자 역할은 국제 사회의 분열을 막고 함께 잘사는 법을 이끌어 주는 멋진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합의하는 길, 함께 가는 길을 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세계 GDP(총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G20이라 일컫는 선진국들과 신흥 개발도상국간의 양극화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균형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함께 잘살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생각을 바꾸어 놓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 초유의 속도로 발전한 신흥 발전국가인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아 후진국에 빵만 주고 마는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술과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여 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대



김진형 전무
(주)카길에그리퓨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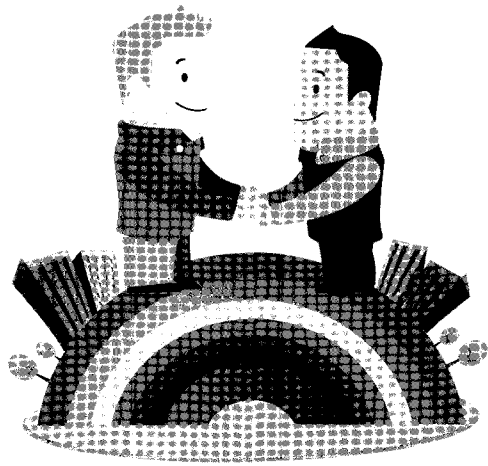
한국이 역설하면서 나섰다. 이를 G20이 수용한 것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성공적인 잘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선 모습에 정말 자랑스럽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Business Submit(세계 경제 정상회의)이 함께 열려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총수와 CEO 120명이 참석하여 경제계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균형성장의 견고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한다.

이어서 개막된 꽃의 도시에 아시아 45개 국가가 모여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제16회 광주 아시아 게임에서도 대한민국의 멋진 승리들과 함께 아시아 전체에 울려 퍼진 애국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장엄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대한민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감격과 조화의 아시아'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한마당 역시 함께 잘사는 법을 주장하고 있었다.

개막식에서 보여준 선녀 45명이 45개 국가를 상징하는 물 향아리를 들고 입장하여 성화대로 사용할 큰 그릇에 각 국에서 가져온 물을 함께 부어 서로 조화와 합쳐짐을 상징하는 연출을 하는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상징적으로라도 물과 같이 완벽하게 혼합되는 것을 원할 만큼 우리 모두는 함께 잘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의 주제는 전 분야에 걸쳐서 균형과 화합, 조화를 키워드로 삼고 있다. FTA가 그렇고 IMF가 그렇고, 예외



가 없이 이제는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11월에도 보았듯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모두 그런 모습으로 서로 다가서고 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함께 잘사는 법을 함께 실행해 온 글로벌 모범국가 대한민국의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은 국내의 이슈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길, 함께 잘사는 법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정말 기쁜 일이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것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우리 육계산업은 무수히 많은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일들이다. 남이 해줄 리가 만무하다.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처한 환경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함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육계, 계육산업을 경험하는 한 해였다. 단연 올 한 해의 화두는

우리 육계산업은 무수히 많은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일들이다. 남이 해줄 리가 만무하다.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처한 환경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함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대형패커 육성, 즉 수직적 계열화냐? 수평적 계열화냐?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함축되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모두가 함께 가려는 토론과 회의 등 많은 성숙된 노력과 의지가 돋보였다고 생각된다.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주도해 나아가느냐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찬성도 있고 발전적 반대도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이다.

이제부터의 사업의 성패는 상하 전후 좌우에 이르는 막힘 없는 커뮤니케이션(소통)에 달려 있다.

감성이 마케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스토리텔링 광고를 보면 마음 깊이 그 이미지가 들어와 자리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냈습니다” 요즈음은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한다. 함께 한다는 내용으로 심금을 울린다. 함께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함께 하고 서로를 인정할 때 그 조직과 사회와 산업은 상상을 초월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다. 나만

이 아닌 함께 잘사는 법은 어려운 게 아닌 것을... 스토리가 있는 닭고기를 소비자가 드시게 하고 싶다.

이제 2010년 한 해를 뒤로 하면서 육계산업의 각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는 길, 함께 잘사는 법을 지혜롭게 터득하여 축제를 만들어 가는 새해, 새로운 5년, 미래의 50년이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육계산업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원년으로 2011년 丁卯年(정묘년)이 되기를 소원한다.

막걸리가 최근 와인을 능가하는 소비성장 추세이다. 그런데 왜 막걸리를 마실 땐 닭고기를 안주로 선호하지 않을까? 왜 프라이드치킨 집엔 막걸리가 없을까? 이번 주말에는 필자가 좋아하는 국내산 춘천닭갈비와 국내산 쌀로 빚은 막걸리에게 함께 잘 어울려 친하게 잘사는 법을 알려 주고, 필자도 아내와 함께 잘사는 법을 연마하고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춘천에 다녀와야겠다. 입가심으로 막걸리도 한사발... 